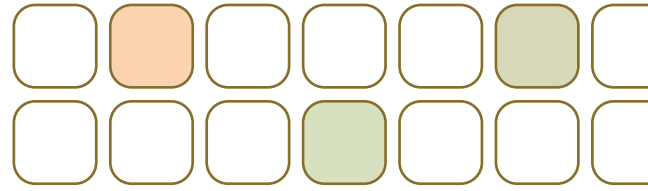


VD RADAR



벤처관련

벤처기업협회, TOZAI CAPITAL KOREA와 업무협약 체결

- 벤처기업의 국내외 자금유치를 위해 협력기로

벤처기업협회(KOVA, 회장 백종진)는 1월 31일(목) 구로디지털단지 내 벤처기

업협회 대회의실에서 TOZAI CAPITAL KOREA(대표이사 KAZUHIRO KOIKE)와 국내벤처기업의 국내외 자금유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단체는 협약에 의해 투자유치희망기업의 발굴 및 대상 선정,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기업분석과 R자료작성 지원, 투자유치전략 수립 및 투자자 섭외, 국내외 IPO 및 투자자 매칭 등을 추진하게 된다.

최근 벤처업계는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해외 자본조달시장에의 직접 참여로 기업의 인지도 향상과 글로벌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벤처기업협회는 정기적으로 해외 자본시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중상시로 투자유치희망기업의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전문컨설팅업체와 연계하여 국내외 IPO를 추진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벤처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토자이캐피탈그룹은 AIM, JASDAQ, KOSDAQ에서 다양한 경험을 지닌 IPO관련 핵심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다국적 매니지먼트팀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비상장기업과 해외로의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기존 상장 벤처기업들에게 합리적인 IPO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로구 중소벤처기업의 포괄적 마케팅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협정식 체결

- 구로디지털단지에 제2의 벤처메카 실현을 위해

- 국내 최초 민·관협력지원사업 본격가동에 따라 새로운 전기 마련

벤처기업협회(회장 백종진)와 구로구(청장 양대웅)은 '중소벤처기업의 포괄적 마케팅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체결식'을 1월 31일(목)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민간벤처지원기구(벤처협회)와 지자체(구로구청)간 협약을 통해 구로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은 국내 최초로 판로개척 과정에서 요구되는 국내외마케팅, 투자자금조달, 전자상거래구매 자금, 기업신용정보관리, 기술사업화 등을 원스톱 풀패키지(One Stop Full

package)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돼 그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생산·판로·경영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각종 청투사 및 금융기관, 생산 이웃소싱 전문기업, 판로개척 확보와 경영컨설팅기관 등 개별 지원기관을 찾아다니는데 많은 거래비용이 중복적으로 발생했고, 시장적기대응(Time to Market)에도 미치지 못해 만족스러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본 협약을 통해 구로구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대기업(B2B) 및 유통기업(B2C), 공공기관(B2G)대상 국내판로개척서비스'와 '전세계 30개 지부, 350여 명의 해외네트워크 조직을 보유한 INKE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판로개척서비스를 기업성장단계에 따라 제공한다.

아울러 유통전문가를 통한 제품판로컨설팅지원, TV홍소핑판매대행지원, 주요언론사초청 정기제품설명회, 글로벌미디어를 통한 제품취재 및 배포(다국어), 투자자금 유치지원, 국내외 주요자본시장의 IPO/IR 지원, 국내전문가를 통한 M&A컨설팅 지원, 각종 전자상거래 구매보증 및 대출지원 등 포괄적 마케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마케팅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중소벤처기업의 매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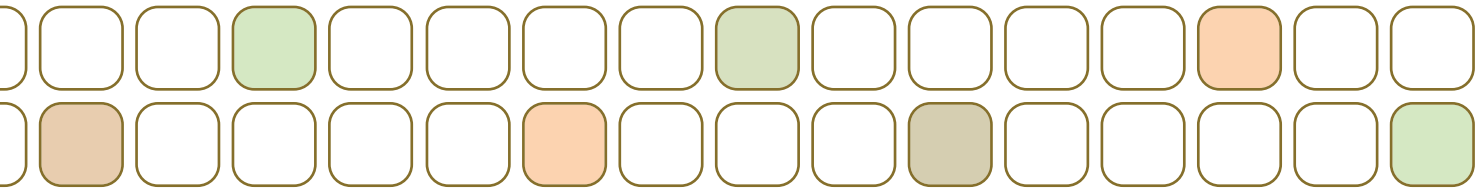
구로구는 구로디지털단지를 세계적인 IT산업 집적지인 '동양의 실리콘밸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그간 산업별 클러스터 문화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단지내 R&D기능 강화, 산학연 협력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래 선도 기술을 보유한 8,000개 이상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여 국내 최대의 벤처 타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본 협약을 통해 국내외마케팅지원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월말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벤처기업협회' (<http://www.kova.or.kr>), 또는 '브이마켓' (www.v-market.co.kr)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협회, '2008년 정기총회' 개최

- 협회를 제2벤처 성장시대지원하기 위한 구심체로 강화

벤처기업협회(회장 백종진)는 2월 21일(목) 17시 서울 역삼동 소재 리마타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에서 2008년도 벤처기업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3차 총회에서 협회는 제2벤처 성장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구심체로 거듭날 것을 표명, 단체명을 (벤처산업협회)로



바꾸는 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벤처유관단체장을 협회 특별 임원으로 선임하는 계획도 밝혔다.

백종진 회장은 '벤처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벤처기업인의 도전정신을 고취하고, 벤처기업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벤처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하여 우선 젊은 기업인을 대거 영입했다. 특히 벤처 2세대를 대표하는 30~40대 젊은 기업인이 이사진으로 대거 합류한 것이다.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5명, 이사 31명 등 총 47명으로 구성되었다. 회장은 백종진(한글과컴퓨터 대표)이며, 김태희(케이블랙스 대표), 최취영(NHN 대표) 김병기(지오인터랙티브 대표), 정 준(솔리테크 대표, 신임) 등 4명은 수석부회장으로, 김경선(한국디엠비 대표), 김용식(에스제이원텍 대표), 신원호(티엔텍 대표), 이창석(인스프리트 대표, 신임), 이희자(루펜리 대표, 신임), 전하진(인케코퍼레이션 대표), 최규욱(오스텀임플란트 대표), 최산규(손오공 대표), 허대영(NCB네트웍스 대표), 전대열(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사진은 강은희(위니텍 대표), 고중석(휴먼메디텍 대표), 권준모(넥슨모바일 대표), 김경임(픽시아소프트 대표), 김병찬(인한스텍 대표, 신임), 김운수(네오엠텔 대표, 신임), 김태철(HMM 대표), 김영욱(컴에이지 대표, 신임), 류정원(사이버패스 대표), 박진만(미움커뮤니케이션 대표, 신임), 박진만(터보테크 대표), 신백규(살리콘하일 대표, 신임), 신현국(유피케미칼 대표), 안병익(포인트아이 대표, 신임), 우성화(터킷링크 대표), 유수형(더존디지털웨어 대표), 유태경(루멘스 대표), 윤석구(테르텐 대표, 신임), 윤성태(휴온스 대표, 신임), 이규대(대경산업 대표, 신임), 이광석(인크루트 대표), 이태금(엘안텍 대표, 신임), 이재환(위즈코리아 대표), 조영철(파이오링크 대표, 신임), 정현경(중앙CS 대표), 주영훈(양카인터넷 대표), 주혜순(미립기술 대표), 지승림(알티캐스트 대표), 허재홍(아이레보 대표), 황의관(한디소프트 대표), 황호찬(한스바이오메드 대표) 등 31명이다.

백회장은 '젊은 벤처인을 대거 영입한 것은 제2벤처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중에 김병찬, 김영욱, 윤석구, 윤성태, 이태금 이사 등은 40대, 이창석 부회장, 박진만, 안병익 이사 등은 30대이다.

한편, 협회는 올해 사업목표를 회원서비스혁신 및 안정적 지원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사업 확

대(NKE 수출증개지원 등) ▲교육 활성화(저체교육 및 정부 용역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마련을 위해 자금 및 투자유치 지원 ▲지방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별 단체의 자생력 확보 지원 ▲서울벤처인큐베이팅(SVI) 재정지급 및 효율적인 창업보육 연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와 더불어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홍보, 윤리사업, 사회공헌 등) △벤처기업 연구조사 강화(실태조사, 정책연구 등) △창업 및 성장인프라 구축 △정보제공 기능 강화 △지방벤처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한편, 총회에 앞서 5시부터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이 <디지털시대의 생존법칙: 지기혁신과 창조경영>을 주제로 한 특강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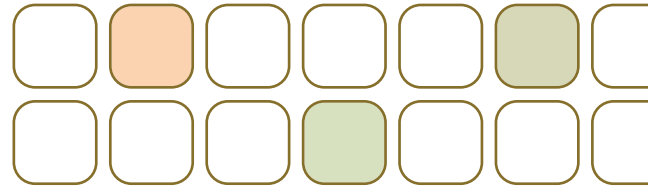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에 600억 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도 상반기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확정, 공고하고 2월

26일 부터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자금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바이어주문형 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600억 원이 지원된다. 사업별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정부가 지원(개발비의 75% 이내, 일반과제 : 3억 원 한도, 2년 이내, 투자연계과제: 외부투자를 조건으로 6억 원 한도, 3년 이내)하고 개발성공 시 구매기관이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은 해외발주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 오더를 받고도 자금부족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1억 원 한도, 1년 이내)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이전 받아 실용화·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용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2억 원 한도, 1년 이내)하는 '이전기술개발사업'에 15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제품(기술)의 혁신적인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자하는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은 중소제조업체의 디자인개발 자금으로 30억 원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5천만 원 한도, 6개월

VD RADAR



이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접수는 온라인(www.smttech.gov)을 통하여 접수하며(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은 각 지방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업관련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온라인 해외마케팅은 中企의 든든한 수출영업사원

LCD 제조장비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는 신도기엔(주)은 영업직원 1명 없이 온라인 수출을 통하여 매년 6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내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중진공에서 지원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마케팅 사업을 적절히 활용한 결과이다. 이렇듯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에는 중기청·중진공에서 운영하는 고비즈코리아(Gobizkorea.com)라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이트가 있다. 고비즈코리아는 2만 6천여 개의 홈페이지 및 15만 4천여 개 상품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88만 번의 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무역포털 사이트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마케팅을 위하여 한글 및 외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고 있다. 일본어, 중국어를 비롯하여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아랍어 등을 제작하고 고비즈코리아에 수록하여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로, 홈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은 해외바이어가 제품정보와 기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고비즈코리아에 직접 자사 홈페이지를 등록하여 전자카탈로그, 기업블로그, 영문 거래제안서 발송 서비스 등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민간자금 연계 공공구매론 활성화

중소기업청은 '0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공공구매론」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생산자금 66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수기로 진행되어온 공공구매론 지원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08예산 10억 원)하여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구매론은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해 '08년 7월,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 중 비교적 구매물량이 큰 6개 정부투자기관과 MOU를 체결한 이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중소기업의 대상기관 확대요청이 쇄도하여 참여 기관을 정부 및 자치단체까지 확대, 총 참여기관이 156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중기청은 금년에 10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 연차적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납

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제1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탄생

대학·연구소에서 보유한 신기술을 출자하여 직접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1호가 탄생했다. 중소기업청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산업부산물 재활용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자본금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주)리스팅비즈의 전문회사 등록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연구기관(국립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식회사로써 '벤처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대학·연구소 10여 개가 전문회사 설립을 준비중이라고 하며, 제1호 전문회사 설립을 계기로 대학·연구소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전문회사 설립시 소요되는 출자기술 평가비용 및 출자기술 개발비용을 지원('08년 예산: 10억 원)하여 전문회사 창출 촉진과 조기 안정을 유도하고 앞으로도 제도보완 등을 통해 연구개발 → 사업화 → 채무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과 함께 전문회사를 대학·연구소 창업의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켜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까지 고유브랜드 수출비중 50% 이상 기업 50개 육성

중소기업청은 글로벌 브랜드 파워 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전문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브랜드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을 개편·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수출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영능력 강화를 지원하여, 2012년까지 고유브랜드 수출비중 50% 이상 기업을 50개 육성한다.

지원 자격은 매출액 300억 원, 수출실적 500만 불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업체를 3월에 선정, 4월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IT기업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20일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에서 중소기업대상 정보회사업 참여 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오는 5월경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우수제품 설명회도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교통 5대 미래유망기술 Test Bed 입지선정 추진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미래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08년도 건설교통 R&D 투자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건교부는 총 120개 R&D 과제에 대해 3,393억 원을 지원하며, 그동안 연구해 오던 95건의 계속과제에 중점적으로 지원(3,189억 원)하여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25개의 과제(204억 원)도 신규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R&D 성과를 활용하여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특화된 기술경쟁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시범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우수 발명특허에 연간 5000만 원까지 지원

특허청은 우수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건당 최대 3000만 원,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08년도 발명의 평가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한 중소기업과 개인,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혜대상자로 선정되면 평가금액의 최고 80%, 3000만 원 이내, 연간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기업에는 특허청의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및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과 '우선구매추천제도',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이전사업화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기점 우대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 권리자는 우선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 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를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84)으로 전화하면 된다.

지역벤처

경북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경상북도는 올해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해외수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지난해 452억 불보다 11% 증가한 수출 500억 불과 무역수지 흑자

230억 불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개척활동 전개, 거대 신흥시장 위주의 권역별 집중적·전략적인 시장개척활동 지원, 해외자매결연 지자체와의 경제교류협력 추진, 재외 한인회·상공인단체를 통한 통상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8년도 통상진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올해 고유가의 지속과 물가 불안심리 확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불확실성 증대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맞춤형·전략적인 시장개척지원으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예산을 지난해 20억 5,200만원에 비해 86.9%가 늘어난 38억 3,600만 원으로 대폭 증액 확보하여 경북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사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 24조 1,863억 원 투자 공격적 경기부양책 내놔

경남도는 『2008년도 지역경제활력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도내 23개 경제관련 기관·단체장들이 모여 기관별 대책 보고와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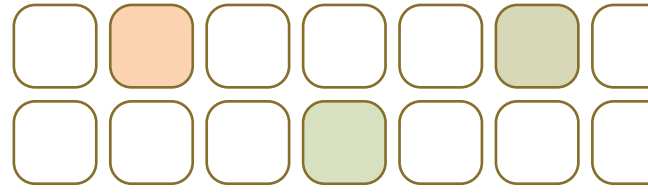
종합대책에 의하면 세계속의 경남 실현 지방 공공재정의 경기친화적 운용으로 지방재정의 87%를 조기 발주하고 이 중 57%에 해당하는 2조 888억 원의 자금이 상반기 중에 시중에 유입되도록 하여 유동성을 증가시키기로 했다. 또한, 중앙부처가 우리도에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 1조 4,657억 원을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경남개발공사 등 도내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토지보상금 등 사업비 5,829억 원을 조기지급하는 등 공격적 투자를 한다.

BT, BTO 등 공공사업의 민자유치사업에 2,281억 원 조기 집행과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대출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력화 종합대책을 추진을 위해 국비 4조 2,410억 원, 도와 시군비 등 지방비 5조 4,336억 원과 민자 14조 5,117억 원 등 총 24조 1,863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전북도,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적극 지원

전북도가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하고 예비창업자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16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중기청과 공

VD RADAR



동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16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3개 분야로 평가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A등급 5개소에는 1천2백만원, B등급 6개소 1천만원, C등급 5개소 8백만원 등 총 1억6천만 원을 각각 차등 지급했으며, 차등 지급 목적은 각 센터별 자율적으로 경쟁을 유도하여 센터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지원된 운영비는 각 센터별로 B 전문인력 양성, 경영·기술 컨설팅, 통신·기자재·설비, 세미나·간담회 등 각종 보육센터를 활성화 하는데 쓰이고 있다. 현재 전북도에는 16개소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 14개소, 중소기업진흥공단 1개소, 전북여성 1개소 등으로 207개 업체가 입주, 고용인원 747명, 연 매출액 4백억에 달한다. 입주업체에는 경영, 기술, 연구개발비지원, 박람회 참가 등 각종 혜택이 있다.

부산시, 부산소재 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부산시는 지역 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면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시행함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방기업이 신규투자 후 새로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50만원까지 최장 2년간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의 혜택과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기존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으며, 산자부에서는 국비를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비수도권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지역기업으로 신규투자를 통하여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한 제조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이다.

제조업의 경우 소기업(1~49명)은 5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이 1명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1명 이상, 대기업(300명)은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30명 이상 신규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업지원서비스업은 투자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신규 고용인원은 제조업기준과 동일하다. 신규투자 때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 구, 군청 지역경제부서에 문의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2008년 창업지원 종합계획 추진

울산시는 기업이 찾는 창업의 요량, 역동적인 산업수도 울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8년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창업·공장설립 컨설팅 서비스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창업·공장설립 지원기능 강화, 창업·공장설립 정보제공 및 지원사책 안내,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추진한다.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은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07년 1월 1일 이후 3년간 창업한 투자금액(투자제외)이 5억 원, 신규고용 5인 이상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액 10% 이내 기업당 10억 원 이내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 보조금을 1억 원 지원하고, 법률·세무 컨설팅, 투자설명회 지원 확대 등 B 중소기업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 또 공동사업 개발 추진 등 울산창업보육센터협의회(UBA)의 역할을 강화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정기 점검·평가를 연 2회 이상 실시해 차년도 운영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공장설립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창업·공장설립 지원센터, 창업지원 협의회, 창업민원해소 핫라인(HOT-LINE), 창업·공장설립 민원처리 모니터링, 공장설립 관리정보망(FEMS) 등 운영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전주시, 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전주시는 수출업체의 입장에 맞춰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서 상담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수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KOTRA 해외무역관과 협약하여 기업체가 개별적으로 해외출장을 실시하였을 때 바이어와의 상담시 상담장 제공·현지 시장 정보 제공·호텔과 교통편 예약 및 업체가 원할 경우 자체 발굴한 바이어에 대한 평판을 확인해 주는 등 현지 체재시 무역상담 활동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며 왕복 항공료의 50%와 통역료도 지원한다.

전주시는 우선적으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세일즈 출장 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참여업체의 수출 성과 등 사업실적 결과를 분석하여 전주시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시는 전북도와 연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에 8회 20개 업체 참여를 목표로 해외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 해외 바이어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e-Trade 인터넷 화상 상담회에 4회 15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현지 무역관을 중소기업의 지사처럼 역할을 부여하여 상품의 전시 및 홍보·계약·상담까

지 1:1로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개척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글로벌신약개발 연구소 설립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과 주식회사 옵토매직(대표 Anthony D. Piscapio)은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신약 개발의 전문적인 경험, 노하우 및 글로벌 바이오분야 네트워크의 강점을 가진 옵토매직 케미존 신약개발사업부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설립될 연구소기업을 통해 생명연구원이 보유 중인 사업화 단계의 신약관련 기술들을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새로 설립할 연구소 기업은 주로 타겟발견 및 검증, 단백질체학, 바이오마커 줄기세포, 진단시약,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 등에 주력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주로 항암, 중추신경계, 감염질환 계통의 단백질신약, 항체신약 및 저분자합성신약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포스텍,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포스텍(총장 백성기)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김규영은 연구인력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골자로 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기술개발·인력양성·기반구축 등 기술혁신 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지원하여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포스텍의 탁월한 연구개발능력을 부품소재산업 지원기관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을 통해 지역기업에 환원키로 하는 것에도 합의해 포항지역 소재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자체와의 업무협력, 신규사업 유치 같은 진흥원의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공동 유틸리티 사용을 통한 연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어 향후 영남지역 금속 소재 관련 부품·소재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데 큰 진전이 될 것이다.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발간

KOTRA가 2년마다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를 발간하여 해외진출기

업의 연락처 및 투자업종, 진출형태, 고용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07·2008년판 디렉토리에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KOTRA 해외무역관이 조사한 9,568개사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대만 및 홍콩 포함)이 45%, 아시아대양주 34%, 북미 7%, 구주 6%, 중남미 4%, 중동, 아프리카 3%, OS 1% 등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4,202개사, 베트남 1,115개사, 인도네시아 737개사, 미국 679개사, 일본 269개사 순이며, 필리핀, 인도, 태국, 멕시코, 방글라데시 등이 그 뒤를 이어 투자진출 상위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지문 우수사례집 '상생의 날개를 달다' 발간

판로개척 실패, 운전자금 부족, 기업부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던 중소기업 10개사를 일으켜 세운 대기업 전직 CEO들의 경영노하우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전경련 중소기업자문봉사단은 2004년 7월 발족 이래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1,200여 개의 중소기업들에게 지문 및 멘토링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경영지문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10개사의 이야기를 엮어 경영지문 우수사례집 「상생의 날개를 달다」를 펴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10개사의 사례는 기업의 업종, 규모에서부터 처한 경영애로의 내용까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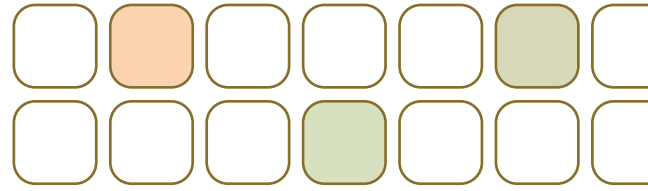
한국전기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한국전기연구원(원장 박동욱 www.keiri.re.kr)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가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의 상업화 신기술과 아이디어, 산업재산권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일반인이나 설립 2년 이하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대상이다. 신청기업 중 4~5개사를 입주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입주는 8월초부터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공용 사무기와 랜(LAN) 등 사무용 시설과 장비를 비롯해 교육실, 휴게실, 샤워실,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을 무료로 제공받게 되며 전기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1천 600여 종의 최첨단 시설과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련 기술정보 △기술경영지도 △기술자문 △판로 및 마케팅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기업이 제품을 개발할 경우 세계 3대 시험인증기관인 전기연구원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품 성능의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서를 접수 중이며, 접수마감은 7월 11일이다.

VD RADAR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연구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www.kerbi.re.kr)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인터넷 무역지원

서울시와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증대를 위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품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이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서울시 중소기업 130개사를 SBA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한다. 선정된 수혜기업은 서울시 인터넷 무역 B2B 포털 사이트(www.hiseoultrade.com)를 기반으로, 산자부 지정 대형 E무역상사를 통한 E무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글로벌 바이어 DB 제공, 수출 홍보지 상품 게재, 해외 E마켓플레이스 활용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수혜기업은 국영문 E카탈로그 제작, 해외바이어 알선, 거래제외서 제작 발송, 인바이어리 관리 등의 E무역 업무프로세스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글로벌 소시스, 알리바바 등 해외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무역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서울시 소재 수출 유망 제품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정기업의 별도 부담금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통상팀(3707-9358),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해외협력팀(2222-3797/3791)에 문의하면 된다.

애니메이션 제작 10억 원 지원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는 10억 원의 애니 프론티어 2008 사업을 실시한다. 국산 애니메이션 1개 프로젝트의 제작 지원금으로 10억 원을 지원하는 본 사업은 지원기관인 SBA와 지상파 방송사인 EBS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제작지원 및 방영채널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단일 프로젝트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모 접수는 4월 7일(월)부터 4월 11일(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ni.seoul.kr)를 참조하면 된다.

ETRI SoC센터, 상암DMC서 종합업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 SoC산업진흥센터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DMC내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로 이전했다. SoC산업의 육성을 위해 원천기술개발과 역량을 갖춘 설계인력 양성에 지난 2003년부터 힘써온 ETRI SoC산업진흥센터는 지난해까지 약 7백여 명의 학생을 대

상으로 IT SoC전공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IT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ETRI는 올해 SoC설계인력 2백 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T-SoC관련 전공인증과정의 참여를 원하는 SoC 관련 분야 석박사 학생은 센터 홈페이지(www.asic.net)에서 인증과정 참여학생으로 등록가능하고, 교육과정은 전액무상이며 과정 이수중에는 SoC개발실습 프로젝트 수행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대덕특구

핀란드 국립기술연구센터 대덕특구내 합작법인 설립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와 대전광역시는 핀란드 VTT연구소의 대덕R&D센터 및 VTT 합작법인(JVC, Joint Venture Company) 설립을

위한 4자(VTT, ETRI, 대덕특구본부, 대전광역시)간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VTT는 ETRI와 보안기술 및 무선통신분야 공동연구센터(기칭 VTT DAEDEOK R&D Center)를 설립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 교류는 물론 공동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VTT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을 비롯한 세계시장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VTT 대덕 R&D 센터에서 개발 및 상용화된 제품을 특구내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합작법인은 VTT, 핀란드 관련분야 전문기업, 대덕특구기업 등이 공공으로 지분투자를 하여 설립되며, 공동기술개발에서 제품 생산, 해외진출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덕특구 3,600만 달러 수출 계약 달성

대덕특구 해외 시장진입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는 지난 2006년 초부터 대덕특구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특구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외 시장진입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서서히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작년 8월 원테크놀로지사의 1,200만 달러(한화 약 17억) 규모 대형 수출계약 체결을 비롯하여 40여 개 업체가 총 3,653만 달러(한화 약 340억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1,733만 달러(한화 약 161억 원) 수출성적을 달성하였다. 특구 해외 시장진입 지원사업을 통해 특구 기술기업들은 수출계약체결은 물론 신규 판로 개척에서 상당한 성과

를 거두었다. 대덕특구본부는 2008년에도 대덕특구의 우수한 기술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화 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벤처

실리콘밸리 이제는 '솔라밸리'

반도체 산업의 신평역할을 해 '실리콘밸리'라는 별칭을 얻었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에서 실리콘(반도체)이 사라지고 있다. 그 대신 태양광 에너지 투자가 급증하면서 실리콘밸리가

솔라(태양)밸리 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태양광 에너지 기업이 늘어나고, 투자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실리콘밸리가 '솔라밸리'로 변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추세는 반도체 기술이 태양전지를 개발하는데 유용하다는 점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인텔, 구글 등 정보기술(IT)업계의 글로벌 기업과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창업자인비노드 코슬라 씨 등이 솔라밸리 조성의 지원자로 나서고 있다. 한편 미국내 벤처캐피탈의 태양광 분야 투자액은 2005년 1억5000만 달러에서 2006년 3억6000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10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급증했다.

美실리콘밸리 불황에 대비중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기업들이 만일의 불황에 대비해 자금을 조달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문이 아니면 자금 지출을 중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 신문은 많은 벤처기업가가 주택시장발 경기침체로 인해 대기업 투자지출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으며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벤처투자자들은 2001년 이래 가장 많은 347억 달러 자금을 조달했지만 샌프란시스코대학이 벤처 투자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1월 시장 신뢰도는 최근 4년 동안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한 벤처 투자자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불황이 도래하면 기업들이 '정보기술(IT) 투자나 광고비 지출을 줄이거나 동결할 것'이라며 향후 시장 여건을 불안하게 여기는 일부 벤처기업이 불황에 대비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장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분석류 판매업체 아이스닷컴은 비싼 상품을 구매할 때 할부 판매 기간을 늘리는 등 고객 유인책을 쓰는 한편으로 지난 1

월에 4,7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하면서 불경기에 대비한 경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日 NTT, 벤처투자 펀드 설립

일본 최대 무선통신사 NTT가 일본 국내외 벤처기업에 출자를 목적으로 펀드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NTT는 펀드를 설립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지닌 미상장기업을 자금 지원할 방침으로 이를 향후 매각 이익과 NTT그룹의 기술개발 및 사업 확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펀드명칭은 NTT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펀드 투자사업조합으로 3월 설립한다. 펀드 규모는 100억 엔가량으로 NTT가 99.8% 출자하고 나머지는 자회사인 NTT파이낸스와 NTT의 전액 출자로 이달 신설되는 펀드사인 NTT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가 각각 0.1%씩 출자할 예정이다. NTT그룹은 NTT도코모가 지난해 10월 한국의 한 통신사와 손잡고 35억 엔(약 3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잉여자금을 활용해 예전부터 국내외에서 벤처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작년 벤처투자 5억 달러 돌파

인도 현지 벤처캐피탈(VC)의 벤처 투자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했다. 인도 벤처캐피탈 및 시모펀드 분석업체 벤처인텔리전스의 집계 결과, 2007년 한해 인도 전역에서 이뤄진 벤처 투자는 총 98건으로, 전체 투자 규모는 5억4300만 달러에 달했다. 벤처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벵갈로르와 뭄바이로 지난 1년간 각각 29건과 24건을 유치,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업종별로는 IT 및 IT서비스 관련 벤처에 65건의 투자가 이뤄져 전체 투자액의 70% 가까운 3억7700만 달러가 집중됐다.

워싱턴D.C, IT기업 엑소더스로 위기감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IT기업의 잇따른 철수로 위기감을 맞고 있다. 워싱턴 D.C와 인근 메릴랜드주·버지니아주·웨스트버지니아주 일대를 포함한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대표적인 IT기업인 AOL과 스프린트넥스텔이 각각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AOL은 온라인광고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버지니아주 델러스에서 뉴욕으로 본사를 옮기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밝혔고 워싱턴D.C에서 조금 떨어진 레스톤에 본사를 둔 스프린트넥스텔 역시 지난달 캔자스주 오버랜드 파크로 이전기로 결정했다.